전두환 5·18때 광주 방문 발뺌 언제까지…

장세동 광주 상주 증언…全, 광주서 보고받고 지시 의혹 확산

장세동(82) 5·18 당시 특전사령부(특전사) 작전참모가 1980년 5월 10일께 광주에 내려갔고 항쟁이 진압된 후에야 서울 부대로 복귀했다는 보안사 관계자 증언이 14일 나오면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를 방문했는지 여부가 다시 주목된다.

광주시민에게 잊혀져 가고 있지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5·18 당시 광주에 왔다"고 발언한 군 관계자는 한 둘이 아니다.

5·18 당시 2군사령관(대장)을 맡았던 진종채 장군은 지난 1995년 검찰조사에서 "날짜와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5월 18일에서 27일 사이 전두환·노태우 등이 광주 비행장에 따로따로 내려와 (소준열) 전교사사령관, (이재우 광주) 505보안부대장을 만나고 갔다는 사실을 2군사령부 참모부에서 보고받았다"고 진술했다.

5·18 당시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 작전참모 백남이 대령은 전두환 광주 방문과 관련된 더 세밀한 진술을 검찰에서 한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노태우 수경사령관이 광주에 방문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1980년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11시경 광주 공군 비행장에 전두환 사령관이 와 있는데, (전교)사령부(전남북계엄분소)에도 갈지 모르니 왕래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연락을 비행장 상황실 근무자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

백 대령은 "소준열 당시 전교사령관 겸 전남북계엄분소장이 직접 비행장으로 가 전두환을 만난 것 같으며, 노태우 사령관의 경우 직접 광주 상무대 전교사 사령부 복도에서 마주친 적도 있다"고 검찰에 밝혔다. 광주 505보안부대 수사관 출신 허장환씨는 1988년 여의도 평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 당시 서의남 중령(505보안부대 대공과장)에게 '오늘 (전두환)사령관님께서 광주를 다녀가셨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사령관님이 주재한 전교사 회의 결과 역시 자위력 구사를 최종 결정했으니 폭도들에게 곧 사살명령이 내려질 것이다, '모든 문제는 사령관님이 책임진다'는 발언을 들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아 책을 펴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군 관계자들이 잇따라 '전두환 광주 방문' 증언을 쏟아낸 바 있고, 14일에는 군부대 지휘관의 동향을 주시하는 보안사 관계자의 '장세동 광주 방문' 증언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를 방문해 주요 상황을 보고받고 결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1980년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최소 8일간 광주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상무대)에 마련된 사령관실과 서울을 오간(1995년 검찰조사 결과)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과 보안사 계통으로 수시로 광주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더해, 은밀하게 광주에 내려와 시위 진압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현지 지휘관을 격려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동안 5·18을 둘러싼 각종 의혹제기에 대해 "광주와 나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역시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전두환 광주 방문'에 대해 부인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두환 광주방문' 과거 증언들 보니

진종채 당시 2군사령관
"18~27일 사이 광주 내려와 전교사사령관·보안부대장 등 만나고 갔다는 보고 받았다"

허장환 505보안부대 수사관
"전두환 주재 전교사 회의 사살명령 내려질 것이라고 서의남 보안대과장에게 들어"

5·18 희망나무에 달린 소망들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해 14일 광주시 북구청 청년간부들과 어린이들이 구청 로비에 설치된 희망나무에 5·18과 관련한 각자의 소망을 리본에 적어 매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무인궤도차 잇단 추돌사고로 25명 경상

순천시, 진상조사 후 업체 행정처분 방침

순천만국가정원 내 '스카이큐브'(무인궤도차)가 잇따라 추돌해 순천시가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 40분께 순천시 순천만 국가정원역을 출발해 문학관역(순천만 습지 인근)을 왕복하던 '스카이큐브'가 3차례나 연이어 추돌, 승객 25명이 경상을 입었다.

순천시는 사고 당일 현장에 관계 공무원을 투입해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했으며, 별도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임시 검사도 의뢰했다.

경찰도 이날 추돌사고 당시 근무했던 관제사 3명을 불러 과실 여부와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조사했다.

순천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임시 점검 결과와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사고가 난 업체에는 5명의 관제사가 근무 중이며 철도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철도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 관계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30일 운행 정지나 1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게 돼 있어 행정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주중 도로교통관리공단의 검사를 완료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개통된 스카이큐브는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의 순천문학관까지 4.64km 구간을 지상 3~4m 높이에 설치된 궤도를 따라 시속 40km로 운행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참사 막으려 고의 교통사고 낸 '의인' 화제

현대차, 신형차량 지급키로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대형 참사를 막은 의인(義人)이 화제다.

경찰은 용감한 선행의 주인공 한영탁(46·크레인기사)씨를 형사 입건하지 않기로 했고, 현대자동차 그룹은 자사 브랜드의 한씨 승용차가 파손된 점을 고려해 신형 차량을 지급하기로 했다.

14일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제2서해안고속도로에서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1.5㎞나 계속 전진했다. 한씨는 A씨 차량을 멈추기 위해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으로 앞질러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평소 지병을 앓은 50대 코란도 운전자 A씨는 사고 전날 과로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잠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차량을 멈추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라며 "입건 대상이 아닌 만큼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씨 차량인 투스카니를 생산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올해 출시한 신형 밸로스터 차량을 전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도청 사수하다 숨진 류동운 열사 추모음악회 열린다 26일 광주공원 야외무대

경북 포항 출신으로 1980년 5월 27일 마지막까지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계엄군 진압작전 때 희생당한 류동운(당시 19세·사진) 열사를 추모하는 음악회가 열린다.

류동운열사추모사업회는 "오는 26일 오후 5시 18분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야외무대에서 2018 류동운 열사 추모음악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경북 포항이 고향인 류 열사는 아버지 류연창 목사를 따라 광주로 이사온 뒤 광주동신중학교와 진흥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경기도 한국신학대학교 신학과 2학년일 때 아버지로부터 5·18 소식을 접하고 광주로 와 항쟁에 참여했다.

1980년 5월 18일 시위현장에서 계엄군에 연행된 그는 이틀 뒤인 20일 석방됐지만, 25일 선배의 죽음을 목격한 뒤 다시 시위대에 합류했다.

당시 시위 합류를 만류하는 아버지를 뿌리치고 전남도청으로 들어간 류 열사는 5월 27일 새벽 계엄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2007년 류 열사의 뜻을 기리는 추모사업회가 꾸려졌으며, 같은 해 남구 광주공원에 '고 류동운 열사 추모비'를 세웠다.

이번 음악회는 류연창 목사 등 유족을 비롯한 김철웅 목포대 성악과 교수, 극단 '푸른연극마을' 등이 참여해 무용, 가곡, 연극 등으로 류 열사를 기린다. 동생 류동인씨는 추모시를 읊으며 형이 바랐던 세상에 대해 들려줄 예정이다.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0-3642-683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5·18기념재단 이사장에 이철우 목사 선출

이철우(67·사진) 목사가 5·18기념재단 제13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5·18기념재단은 14일 이사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 목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재단 이사회는 "이 신임 이사장이 1980년대 후반부터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출 배경을 밝혔다.

또 이 목사가 옛도청복원시도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로 활동하면서 시민사회와 소통한 점도 고려됐다는 게 이사회의 설명이다.

이 신임 이사장은 신안군 하의도 출신으로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뒤 무등교회 담임목사로 재임하고 있다. 광주 YMCA 이사장, 제1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2005)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를 맡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5·18때 계엄군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김재윤 교수 인권세미나서 주장

5·18민주화운동에서 계엄군이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공익인권 세미나' 발제문에서 "5·18 진상규명법이 제정됐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한 5·18 내란사건 추가 핵심 관련자를 기소해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5·18 내란사건 범죄행위 종료 시점은 비상계엄 해제 시점인 1981년 1월 24일이고, 공소시효 완료일은 1996년 1월 23일이 된다. 그러나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헌정범죄시효법과 5·18민주화운동법은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두 법률을 근거로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5·18 내란 사건 추가 핵심 관련자를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독일은 1946년 제정된 '나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시작으로 나치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했고, 이후 형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고, 1979년에는 아예 공소시효를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발제자로 나선 김정호 변호사는 "5·18 부인·왜곡행위는 5·18유공자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므로, 벌칙신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 601호에서 '2018 공익인권세미나'를 열어 5·18 진상규명 특별법 의의와 헌정 질서 사범 공소시효 폐지 등을 논의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출입금지 탐방로 들어갔다가…추락해 다치고 과태료까지

쌍나팔

○…월출산 국립공원 산행 중 출입이 금지된 탐방로(샛길)에 들어갔다가 추락한 50대 여성이 병원치료에 이어 일행과 함께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돼 울상.

○…14일 월출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일행 2명과 함께 월출산 장군봉 일원에서 하산하다 암벽(5m)에서 추락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 등을 다친 A(여·54)씨와 일행 등 3명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

○…영암산림항공관리소에 헬기지원을 요청해 A씨를 목포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월출산 장군봉 일대는 산세가 험해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며 "일행 중 1명만 다쳤지만 탐방객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의미에서 전체 입산자를 입건했다"고 설명.

/영암=전봉헌기자 jb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7타경14657	1	서구 풍암동 1048 풍암지구호반,중흥아파트 106동 17층 1706호 59.88㎡	아파트	162,000,000 162,000,000	2017타경18604[중복]
2017타경17465	1	서구 상무공원로94, 101동 17층 1701호 [치평동,대주아파트] 59.955㎡	아파트	157,000,000 157,000,000	
2017타경18772	1	나주시 송월동 660 송월주공아파트 105동 11층 1103호 49.97㎡	아파트	64,000,000 64,000,000	
2017타경68456	1	나주시 예향로3793, 12층 1215호 [이창동,나주사랑가] 48.7534㎡	아파트	126,000,000 126,000,000	
2017타경68876	1	광산구 월계동 758-3 동아아파트 104동 1층 103호 84.65㎡	아파트	170,000,000 170,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7타경17595	1	광산구 고룡동 93 152㎡ 제시외 다용도실 등 23.9㎡	대	218,439,000 218,439,00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
		동소 97-1 177㎡	대		
		광산구 임곡연동길 149 1층64.13㎡ 2층25.62㎡	단독주택		
2017타경67866	1	남구 주월동 968-8 143.8㎡	대	135,849,400 135,849,40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2018타경60480[중복]
		남구 회재로1230번길 17-3 1층67.14㎡ 2층53.73㎡ 부속건물 창고2.52㎡ 변소1.21㎡ 제시외 다용도실 등 36.8㎡	단독주택		
2017타경68715	1	북구 임동 151-2 136㎡	대	16,307,470 16,307,47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지분비율포함.공유자우선매수 신고1회에한함
		북구 서림로 27-14 1층71.40㎡ 2층62.75㎡ 부속건물 광14.87㎡ 제시외 주택 8.28㎡[물건번호1:이종순지분2/15전부]	단독주택		
2018타경1061	1	나주시 영산동 124 136㎡	대	24,431,900 24,431,900	일괄매각
		나주시 영산2길 14-7 33.05㎡[건축물대장상면적33.06㎡]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17타경19607	1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1141-2 902㎡	답	82,984,000 82,98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7타경68098	1	동구 용산동 621 341㎡	답	18,414,000 18,41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7타경69022	1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539-2 2890㎡[농지취득자격증명요,김용인1/5지분전부]	답	11,328,800 11,328,800	공유자우선매수신고1회에한함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7타경14206	1	서구 시청로13, 3층 318호 [치평동,상무리채2] 26.8112㎡	오피스텔	80,000,000 80,000,000	
	2	서구 시청로13, 3층 319호 [치평동,상무리채2] 26.8112㎡	오피스텔	80,000,000 80,000,000	
	3	서구 시청로13, 3층 321호 [치평동,상무리채2] 26.8112㎡	오피스텔	80,000,000 80,000,000	
	4	서구 시청로13, 3층 322호 [치평동,상무리채2] 26.8112㎡	오피스텔	80,000,000 80,000,000	
	5	서구 시청로13, 3층 323호 [치평동,상무리채2] 26.8112㎡	오피스텔	80,000,000 80,000,000	
	6	서구 시청로13, 3층 324호 [치평동,상무리채2] 26.8112㎡	오피스텔	80,000,000 80,000,000	
	7	서구 시청로13, 4층 418호 [치평동,상무리채2] 26.8112㎡	오피스텔	80,000,000 80,000,000	
	8	서구 시청로13, 4층 420호 [치평동,상무리채2] 26.8112㎡	오피스텔	80,000,000 80,000,000	
	9	서구 시청로13, 4층 423호 [치평동,상무리채2] 26.8112㎡	오피스텔	80,000,000 80,000,000	
	10	서구 시청로13, 4층 424호 [치평동,상무리채2] 26.8112㎡	오피스텔	80,000,000 80,000,000	
	11	서구 시청로13, 4층 426호 [치평동,상무리채2] 26.8112㎡	오피스텔	80,000,000 80,000,000	
	12	서구 시청로13, 5층 521호 [치평동,상무리채2] 26.8112㎡	오피스텔	80,000,000 80,000,000	
	13	서구 시청로13, 5층 522호 [치평동,상무리채2] 26.8112㎡	오피스텔	80,000,000 80,000,000	
	14	서구 시청로13, 5층 526호 [치평동,상무리채2] 26.8112㎡	오피스텔	80,000,000 80,000,000	
2017타경15964	1	북구 본촌동 255 143㎡	대	177,137,040 177,137,040	일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만허용.서정금지분5/9전부,이종임지분2/9전부
		동소 265-3 22㎡	대		
		북구 본촌마을길 169 1층93.538㎡ 2층90.40㎡ 3층79.865㎡ 부속건물 화장실2.0㎡ 제시외 창고 등 24.33㎡[제시외건물포함]	일용품소매점,사무실,주택		
2017타경19508	1	서구 금호동 244-3 지하층 비03호 454.38㎡	소매점	1,310,000,000 1,310,000,000	
[자동차,중기]					
2017타경68166	1	사용본거지:북구 운암동 금호로40번길 11,102동 1703호[운암동,대주아파트] 등록번호:30모2251 차명:제네시스 연식:2012	자동차	22,000,000 22,000,000	보관장소:광주서구벽진길75글로벌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8. 5. 29.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8. 6. 5.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8. 5. 15.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신호